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1회차

2017년 11월 26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감독 확인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1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용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 공 통 문 항

### 〈가〉

인간은 대부분의 것들을 망각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간은 책부터 비디오에 이르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 외부 메모리로 활용해 왔다. 이 도구들로 인해 인간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을 통해 값싼 디지털 저장 장치의 이용, 손쉬운 검색, 전지구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으며,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 메카니즘의 하나를 일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생물학적 망각이라는 구속과 인간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방대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메모리는 정확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망각조차도 인간이 초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수년 간 희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한 환자의 기록이 상세하게 담긴 디지털 의료 파일을 예로 들어 보자. 의사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의사가 손으로 기록한 지 여러 해가 지나 판독하기 어려운 메모 같은 수단에 의지하는 것보다 이 파일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 조사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기록이나 항공기 블랙박스 등 증인의 두뇌가 재구성한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괄적이고 간편한 기억을 통해 확보된 부가적 효율성도 디지털 메모리가 지닌 큰 장점 중 하나다. 정교한 과학적 성과물이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료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메모리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써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정확한 디지털 메모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여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잘 정의된 목표 집단을 향해 홍보할 수 있게 해준다.

### 〈나〉

신경생물학의 발견 중 하나는 생물체의 기억이 컴퓨터 메모리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생물체의 기억은 살아있는 데 비해 컴퓨터의 메모리는 그렇지 않다. 기억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은 생물체의 기억이 지닌 유기적인 성격을 간과한다. 생물체의 기억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과정에 있다. 컴퓨터와 달리 기억이 강화되면 뇌에는 새로운 연결의 조합, 즉 새로운 문맥이 생긴다. 반대로 컴퓨터에 저장된 기억은 별개의 정적인 비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저장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이 비트들을 원하는 횟수만큼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기억은 항상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은, 인간의 뇌는 더 이상 경험을 기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장기 기억을 저장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힘을 강화하며, 기억을 강화할 때마다 우리의 지적 능력은 향상된다. 인터넷은 기억에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조물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기억의 대체물로 사용하면서 내부적인 강화 과정을 무시해 버리면 풍부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정신은 텅 비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거나 망각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억 강화의 핵심은 집중이다. 기억을 저장하고 이와 동일한 강도로 중요한 것들을 연결하는 일은, 지적인 반복과 감정적인 개입을 통해 확대되는 강한 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한다. 예리하게 집중할수록 기억도 더 예리해진다. 이에 비해 우리가 온라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는데, 정보를 매우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평소 인터넷 서핑을 즐겨 하던 많은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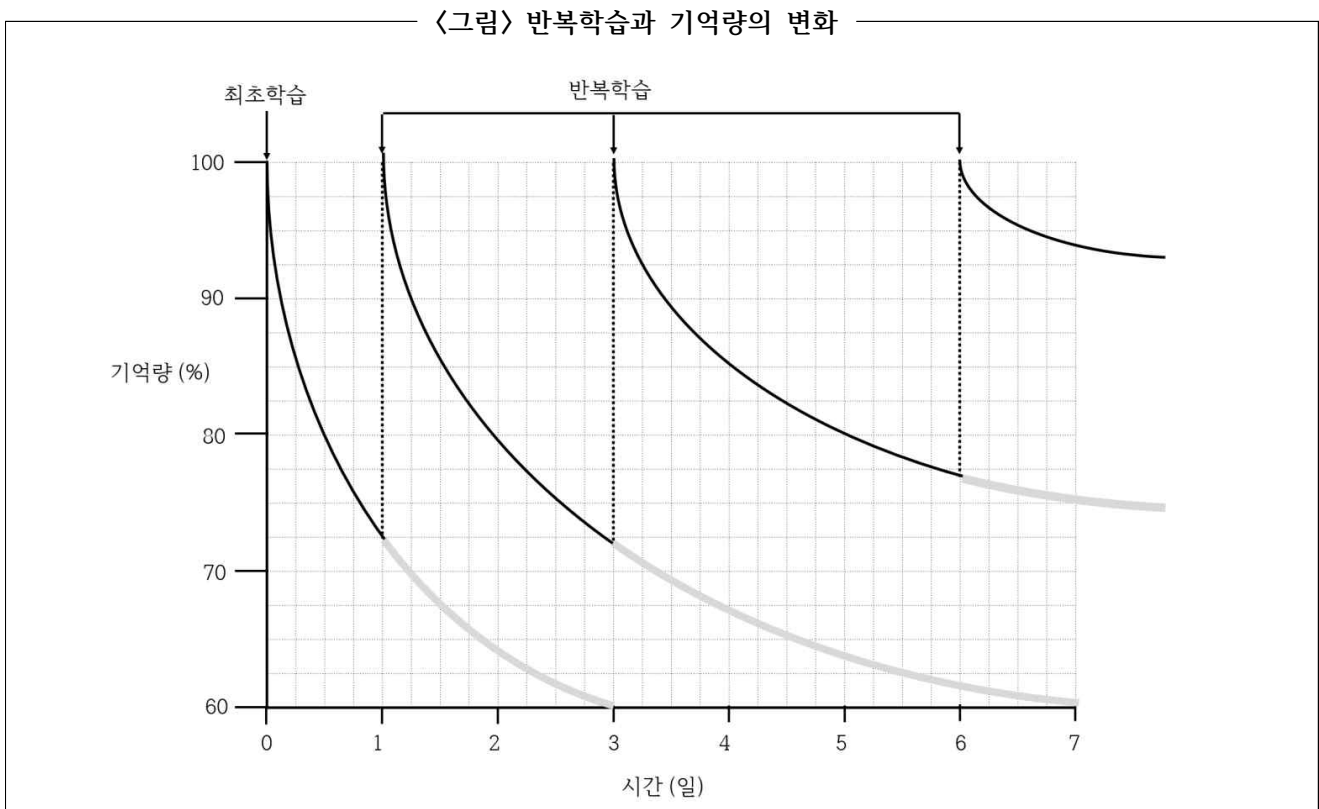
<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을 길들여진 습관, 즉 반복에 의해 점점 더 깊게 새겨지는 지각의 인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기억들이 우리 삶의 사건들과 세부 사항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특정한 날에 발생하며 결코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학습된 기억들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학습된 기억들에 더 주목한다. 그리고 동일한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이 기억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미 알려진 습관의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기억을 기꺼이 전면으로 밀어 올려 '기억의 전형'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반복에 의해 구성되어야만 하는 것'과 '본질상 반복될 수 없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어떤 계기를 통해 불현듯 찾아오는 회상과 같은 '우발적 기억'은 반복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습관과 같은 학습된 기억은 더 잘 암기될수록 점점 더 비개인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반복으로 인해 우발적 기억이 습관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나오는 특정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여 기억하는 것과, 어떤 책을 단 한 번 읽었을 뿐인데도 훗날 우연한 계기를 통해 그 사건이 특별한 독서 경험으로 회상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가 방금 구별한 두 기억들 중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기억으로 보이는 것은 우발적 기억이다. 심리학자들은 반복 학습에 의해 획득된 기억을 탐구하지만, 이것은 기억 자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기억에 의해 조명된 습관이다. 우리의 뇌는 주어진 어떤 지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추억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에게 고유한 기억은 뇌의 기능과는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 기억과 우발적 기억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 <가>와 <나>의 차이를 요약하고, <다>의 입장에서 <가>와 <나>의 한계를 논하시오.

(단, <그림>을 활용하시오.) (1,000±100자)



## 계 열 문 항

## 〈가〉

우리의 시대는 소수자들의 시대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획일화된 주체가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색다른 생각과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위로부터의 거대한 획일화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일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수의 흑인들이 소수의 백인들에게 권력을 독점당한 채 여전히 주변으로 내몰려 있다.

소수자들은 권력을 지닌 다수자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소수자들은 국가의 감시 시선에 감지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활동을 벌여 나간다. 자신들의 고유한 욕망을 당당하게 표출하면서 주변으로 향하는 다양한 출구들을 찾아 나선다. 일부 소수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가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국가 장치에 포획되기를 거부하는 특성을 보인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다수자와 투쟁하는 것은 소수자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소수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하고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도 한다. 거대한 전선에서의 힘겨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바꾸면서 자신의 주위도 바꾸어 가는 미시 정치적 힘겨움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의 틀에, 표준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면 기꺼이 ‘소수자되기’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소수자적 특성들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작은 혁명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양한 소수자적 특성들을 거부하고 표준에 고착되어 저 멀리 있는 권력의 환영에 젖어 획일화된 공간에 갇혀 있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유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에서 다수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수는 상대적으로 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결정을 의미한다. 백인, 성인, 남성 등 다수성이 지배의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상태가 다수성을 뜻한다.” 이런 정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다수자가 수적으로 우세한 존재들을 의미하며 소수자는 이에 비해 수적 열세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엔가 숨어 있는 듯 드물고 낮은 소수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수성을 강조하는 이 철학자들에 따르면 “다수성이라는 추상적 유형은 세계를 하나의 모델로 고정시키는 것일 뿐 구체적 형식 속에서 충만하게 실존할 수 없다. 소수는 모든 사람(Everybody)이다.” 소수가 만인이란니? 이 이상스런 철학적 정의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

헝가리 태생의 코미디 배우 피터 로르(1904~1964)는 멋진 연기로 1930~4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중 한 사람이었다. 찰리 채플린은 피터 로르를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195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서 매카시즘 열풍이 불어 닥쳤을 때 할리우드의 영화인들 역시 큰 고역을 치렀다. 어느 날 로르의 집에도 연방수사국 직원이 나타나 사상적으로 수상한 인물들 모두 대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다. 끝도 없이 줄줄이 나오는 이름들을 검은 수첩에 가득 받아 적으며 그 연방수사국 직원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후 연방수사국은 다시는 로르를 찾지 않았다.

“누가 사상 검증이 필요한 자인가?”(“누가 소수자인가?”)라는 연방수사국 직원의 물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두 다!”라고 말한 로르의 유쾌한 답변이야말로 소수성의 철학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연방수사국이 정한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라는 다수적이고 표준적인 모델은 그들의 서류철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모든 이들은 어떤 면에서든 항상 표준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독

특성을 지닌다. 소수자는 우리가 특별히 만나야 할 어떤 인물, 어떤 계층이 아니다. 그는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이다. 다수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자는 아무도 아닌 자(Nobody)이다.

### <다>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불과 몇 걸음 차이로 옆집 남자들을 피할 수 있었던 운수 좋은 날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같은 처지끼리 인사나 하고 지내지.”

한쪽 목발을 짚고 있는 그녀는 굼직하게 생긴 외모처럼 태도도 시원시원했다. 박명화라고 이름을 밝힌 그녀가 또래 대학 입학생들보다 나이가 네 살이나 더 먹었다고 털어놓은 것은 만난 지 일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는 썩 내키는 기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둘의 관계를 의식해 나 역시 결코 만만찮은 나이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둘은 동갑인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공통성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똑같이 공유해야 할 두 사람의 처지를 확인하는 일이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모임이 있대, 샘물회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녀는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좀 열적은 기분이 들었다. 소위, 같은 처지끼리 밀어낼 것까지야 없지만 구태여 끌어당겨서 한통속으로 몰려다닌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마지못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샘물회의 첫인상은 뜻밖으로 강렬했다.

중국집에서 방과 방을 가르는 사잇문을 떼어 버리고 길쭉하게 튼 공간에 회원들 모두 둘러앉았다. 오래된 나무 탁자 가장자리에는 버드나무 채를 후려친 것처럼 삐곡하게 들어찬 칼자국으로 성한 데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다 칼을 숨겨 다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새길 수 없는 예리한 자국들이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참으로 다양한 방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야! 부실한 인간들 참 많다.”

“저 인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이구! 저 부실한 인간.”

“부실한 것들, 모였다 하면 골 때린다니까.”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능청스레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러자마자 이쪽저쪽에서 다시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부실이라는 단어는 샘물회의 성격을 대변하는 유머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핵심적인 카타르시스로 작동되고 있었다. 여태까지는 늘 신체성의 결격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터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드러내 놓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부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좌중들은 번번이 폭소에 빠졌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의 단어가 매번 사람들에게 새로운 뜻이 사용되었고 어느새 나 또한 익숙해져갔다. 차츰 방 안의 분위기는 익을 대로 익어서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친밀감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육체에 고장이 난 사람들을 부실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육체를 싸고 있는 옷을 훌훌 벗어버린 맑은 정신은 가능한가? 대지를 디딜 힘이 달려서 늘 허덕이는 장애인은 널려 있는 땅 위를 마음 놓고 주저앉아 보지도 못했다. 차오르는 열기 속에서 나는 심연의 생채기에 새살이 차오르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2. <가>와 <나>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다>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의 의미를 <가>와 <나>를 통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